

천제 스님 (해월정사 회주)



선지식을 찾아서

천제 스님은

1966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5·6대 중앙종회의원과 중...

“원수까지 부처님처럼 섬기는 것이 참 불공”

급작스럽게 병사한 아버지의 49재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열다섯 살 소년은 그대로 집을 쟁겨...

육남매의 맏이였던 소년의 뒤를 이어 일 년 후 여동생이 출가를 하고 이어서 어머니가 출가했다.

세상은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는다고 했단가? 천제 스님은 육신의 부친을 떠나보내고 마음의 부친 성철 스님을 만나게 됐다.

첫 10년은 수행 행자로서 성철 스님을 시봉했고, 그 다음 10년은 팔공산 성전암에서 은둔했던 시절에 모셨다.

“성철 스님은 평생 동안 상좌를 두지 않겠다고 상좌가 되려는 사람들을 모두 다른 스님에게 보냈어요.

이렇게 하여 천제 스님은 성철 스님의 망상좌가 됐다. 천제 스님이 가장 아끼는 성철 스님의 친필이 있으니 1952년 10월 6일의 기록이다.

“중노릇,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과 같이 섬기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위대한 인물은 모든 사람들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다(受施如佛).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과 같이 섬기는 것이 중노릇 같다는 것이라는 가르침과 함께, 그 말미에 ‘수시여전(受施如箭)이라, 시주받기를 화살 받는 것처럼 두려워하라’는 글귀를 써주셨다.

천제 스님은 성철 스님과 더불어 산중에서 은둔자적인 삶을 살았다. 그러다 성철 스님께서 마지못해 종정직을 수락하셨지만 ‘산승은 산에 있어야 한다’면서 산을 내려가지 않았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천제 스님은 현재 조계종 법규위원장 소임을 맡고 있다. 종단의 법규위원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그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와 같은 곳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천제 스님은 현재 조계종 법규위원장 소임을 맡고 있다. 종단의 법규위원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그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와 같은 곳이다.



“마음의 부친” 성철 스님 곁에서 40여년간 시봉 “큰스님 설법 실천되지 못하는 현실 안타까워”

높아졌다. “이런 관례를 보고서 1994년 말빈당한 사람들이 사면복권을 요청해왔지만, 법규위원회가 관여할 여지가 없어 안타깝지만 합니다.

천제 스님은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행정진하는 봉훈관(奉訓官)을 개관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원을 세운 천제 스님은 2004년 건립을 시작해 2007년 10월에 개관했다.

봉암사 결사가 전장으로 중도에 그친 일을 못내 아쉬워하셨던 성철 스님은 천제굴에서라도 총림의 일과를 지켜야 한다면서 아침 예불에는 ‘능엄주’를, 저녁 예불 때는 ‘예불대참회’를 했다.

봉훈관에는 성철 스님이 남긴 친필과 소장했던 경전을 전시·보관하는 시월전이 있다. 시월(示月)은 중생이 수행해서 깨달아야 할 성품인 심월(心月)을 보인다는 뜻이다.

장경>과 같은 경전들도 시월전의 한켠을 차지하고 있다.

“서구의 학술자료들을 얻어 보기가 어려웠던 당시에, 은사스님은 불교의 교리나 윤회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사람을 보내서라도 구해와서 보셨어요.

천제 스님은 2년 전부터 매달 음력 초사를 법회에서 성철 스님의 메모를 한 장씩 복사해 신도들에게 나눠주며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스님은 공주규약에 명시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자들과 신도들에게 설법을 통해 제시했어요. 무속행의 하지 말라, 부처님 파는 사람도 사기꾼이나 마찬가지로 사기꾼이던지,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어요.

60년이 흐른 지금, 전국의 사람들이 자급자족 원칙, 특별보시 거부, 축원 금지 등의 공주규약을 얼마나 수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참 불공이란 목탁을 두드리며 불단에 음식을 차려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섬기는 것이다.

Advertisement for 'Onyeolbokdae' (온열복대) health product. Includes text about health benefits, product features, and contact information. Features images of the product and related items like 'Hyeon-danmok' (현단목).